



(...10페이지에 이어)
 람과 애도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통 사람이 범죄자로 오인받고 감옥에 간다면 얼마나 끔찍한가."
 -반대로 히틀러는 '투명성 가정'을 완전히 거스르는 인물이다. 체임벌린은 그를 만나고도 그가 전쟁광임을 눈치 채지 못했다. 그가 보여준 변덕스럽고 예측불가능한 양상을 보면서 트럼프와 감정을 생각했다. 그들이야말로 전세계인에게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냐?

"낯설지. 우리는 그들을 정치지도자들로만 해석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관점이 그들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방해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하나의 맥락으로만 보서는 안 된다. 지도자의 위치보다 개인적인 동기들을 봐야 하는데, 우리에게 정보가 부족하다. 어떤 경우이든 다양한 맥락을 유추해야 하는데 정보가 불균형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제대로 보기 어렵다"

-낯선 사람에게 가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다. 우리는



타인을 모른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한가?

"아이러니하지만 삶의 한 영역에서 구축한 진정한 통찰력은 다른 영역에 가면 거의 쓸모가 없다. 당신도 나도 자주 말을 섞고 지낸 친구나 가족, 오랜 시간 교류한 동료는 그나마 좀 알고, 여러 각도로 공감하려 애쓴다. 안타깝게도 그와 비슷한 자신감을 낯선 사람에게 적용하면 실패 확률이 높다. 그것이 내가 재앙을 일으킨 특정 '상호작용'을 탐색하고 얻은 결과다.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이다."

-신뢰의 문제로 확장해보자.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데스레노 '신뢰의 법칙'에서 신뢰는 선악이 아니라 이익의 균형을 찾는 문제라고 했다. 믿을만한 사람은 없으니 무조건 상황을 보라고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진실 기본값'과 '태도와 내면은 일치한다'는 '투명성 가정'에 우선해서 타인을 판단한다. 단언컨대, 신뢰는 모든 의사소통 전략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야 우리가 소통하고, 협력하고, 친구를 만들고, 복잡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암묵적인 신뢰에서 오는 혜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인류 공동체는 진화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신뢰는 가끔 일어나는 사기나 배신을 보상해주고도 남는다. 다양한 샘플을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언

▲ 영화와 연극으로 만들어진 '클로저'의 한 장면.

제 믿고 믿지 말아야 할지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신뢰를 주었다 뺏았다'를 자유자재로 결정할 만큼 우리는 타인에 대해 절대대로 알지 못한다."

-'진실기본값'과 '투명성 가정'이 진화의 결론이라면, 앞으로는 정직성과 투명성이 시대정신으로 더욱 확장되리라 보나? 생각해보면 숙박, 차량, 물건 등 IT 기반의 수많은 공유 산업도 '신뢰'라는 거대 인프라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 같다.

"물론. 우리는 은연중에 알고 있다. 타인을 믿는 만큼 발전하고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을. 당신이 신뢰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사회적 만남을 할 수 없다.' 진실 기본값과 '투명성 가정'에 맞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른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에서, 이 두 가지 물은 여전히 유효하고 유익하다."

-거대한 인간 다큐멘터리처럼 설계된 글은 어떤 방식으로 쓰고 있나?

"내 글은 끊임없이 두 발로 움직이고, 새롭고 다양한 보통 사람들과 나누는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진다. 창의적인 사람은 생각이 진부하고 예측 가능해지면 그걸 위험신호로 받아들이어야 한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창의적일 수 있나? 당신을 출판계의 스피버그라고도 한다.

"스필버그라니! 고마운 말이다. 하지만 나는 독자들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나만의 통찰을 따르는 편이다. 나에게 묻는다. "말콤! 뭘 하고 싶지?" 내가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 주제에 흥미를 느낄 거라는 확신이 있다. 창의적인 많은 사람이 균형을 잃고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타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1만 시간의 법칙을 세상에 알린 '아웃라이어'도 재밌게 읽었다. '아웃라이어'는 이후 '불굴의 투지'를 의미하는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으로 변주되어 세상에 더욱 확고하게 정착됐다. 탁월한 사람은 하루 3시간 10년 동안 자기 일에 투자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나? 이론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만족하나?

"글쎄. 이제 그 이론은 맥락을 다소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고자 한 바는, 그 어떤 재능이든 완전하게 발달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연습이 필요하다. 완벽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은 없다. 우리가 인지적으로 복잡한 과업을 평가할 때, 1만 시간의 연습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몸이

기억하게 만드니까.

하지만 이것이 누구나 충분히 연습하면 무엇이든 잘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오!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 내가 골프를 2만 시간 친다고 해도 절대 타이거 우즈가 될 수 없다. 첼로를 20년 켜다고 해도 요요마처럼 연주할 수는 없다. 예체능 분야에서 타고난 소질은 필수적이다. 기본적으로 탁월함은 1만 시간과 재능의 결합 상품이다. 어떤 것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내가 가진 근본적인 생각은 하나다. 인간의 행동과 인식, 그리고 성과는 자기 자신을 벗어난 어떤 힘에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문화, 역사, 이념, 가족, 맥락, 환경과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역사와 공동체의 융합의 결과물이다."

달리 말하면, 내 저술 작업은 인간의 관점을 자기 안의 작은 영역에서 자기 밖의 세상을 향해 옮겨가려는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준 교훈도 마찬가지 아닐까. 당신

▲ 낯선 사람 트럼프.

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노출되어왔느냐'가 감염에 있어 중요한 문제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노출되어왔느냐... 그 질문이 말콤 글래드웰의 저술의 DNA에 있는 것 같다.

"맞다. 당신이 말한 그것이 바로 '저널리스트의 DNA'."

-당신은 어떤 양육방식을 가진 부모에게 노출되어 왔나?

"아버지는 올곧은 수학자였고, 어머니는 자메이카 출신으로 서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작가다. 어머니는 명쾌하고 평이하게 글 쓰는 법을 알려주셨다. 무엇보다 부모님 두 분은 내게 타인에게 편견 없이 마음을 여는 것과 정직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간혹 오류와 함께 당신들이 무엇인가 더 알아야 할 게 있다면, 언제나 기꺼이 인정하셨다."

-특별히 '타인의 해석'을 아버지 그레이엄 글래드웰에게 헌사한 이유는?

"책을 쓰는 동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평생 낯선 자를 경계 없이 대했다. 최고의 대화는 서로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끝나는 대화라고 말씀하셨다."



▲ 말콤 글래드웰은 낯선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놓인 배경과 맥락까지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자 여행사

SALE!

에어 캐나다, 대한항공 한국행 세일 !!!

에어 캐나다 세일

대한항공 세일

대/한/항/공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MAIL: gajatravel@gmail.com

캐나다 동부투어 및 미 동부투어 상품

- 캐나다 동부 (Best)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미서부투어 상품

-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목, 금 출발
-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 서부 4박 5일 (3대캐년)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 엘로스턴 3박 4일, 첫출발 5월 13일, 매주 월, 금요일 출발

유럽투어 상품

-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BEST 상품)
- 핵시 서유럽 6박 7일
- 이태리 일주 7박 8일
-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 동유럽 7박 8일
- 발칸 일주 11박 12일
-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박 12일
-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 성지 순례 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유럽투어 출발일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